

## 최근 10년간 서울대 합격자수

# 광주-승덕고, 전남-순천고 1위

### 전국 1~6위 특목고 득시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최근 10년간 서울대 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순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승덕고·고려고·문성고 순으로 서울대 학생을 많았다.

22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전국 고등학교별 서울대 학생 배출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승덕고가 지난 10년간 서울대

합격자를 97명 배출해 가장 많았고, ▲고려고 90명 ▲문성고 87명 ▲국제고·동신고·인성고 73명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순천고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제철고 67명 ▲목포고 62명 ▲순천여고 52명 ▲여수고 48명 순이었다.

10년간 1명이라도 서울대 학생을 배출한 학교는 광주 45개, 전남 56개 고교였다. 이중 전남지역에서 10년간 1명씩의 서울대 학생을 배출한 고교는 17개 학교. 이들 학교 대부분이 최근

5년내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신설된 농어촌 특별전형 등 선발방식 다양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10년간 전체 서울대 학생 수는 1천587명이었으며, 2000년 20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2년 157명 ▲2004·2006년 각각 129명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 2008년 139명으로 이었다.

전남은 10년간 총 603명의 서울대 학생을 배출했다. 1999년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1년 65명 ▲2003

### 최근 10년 서울대 학생 배출 상위 10개교

| 〈광주〉 |       | 〈전남〉   |    |        |        |
|------|-------|--------|----|--------|--------|
| 순위   | 학교명   | 합격자(수) | 순위 | 학교명    | 합격자(수) |
| 1    | 승덕고   | 97     | 1  | 순천고    | 100    |
| 2    | 고려고   | 90     | 2  | 광양제철고  | 67     |
| 3    | 문성고   | 87     | 3  | 목포고    | 62     |
| 4    | 국제고   | 73     | 4  | 순천여고   | 52     |
| 5    | 동신고   | 73     | 5  | 여수고    | 48     |
| 6    | 인성고   | 73     | 6  | 전남과학고  | 37     |
| 7    | 서석고   | 64     | 7  | 전남외국어고 | 20     |
| 8    | 광고고   | 63     | 8  | 여수여고   | 18     |
| 9    | 금종고   | 62     | 9  | 목포영통고  | 15     |
| 10   | 광주과학고 | 59     | 10 | 목포흥일고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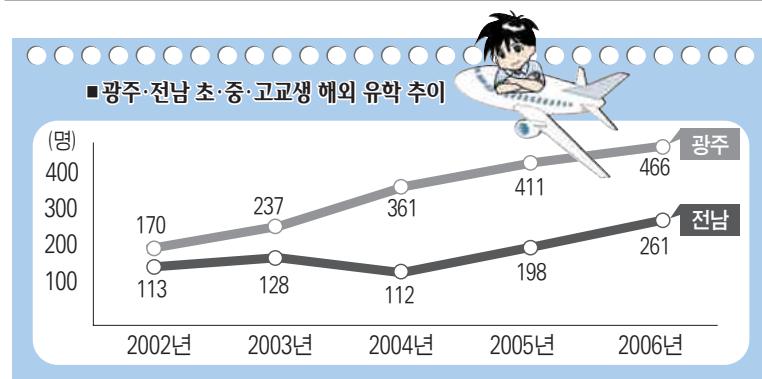
대원외고 611명, 서울과학고 432명, 선화고 365명, 명덕외고 360명, 한영고 275명 등 순이었다. 상위 6위까지 특목고가 독식했다. 전체 7위는 일반고 중 1위로 259명의 학생을 낸 경기고가 차지했다.

비(非)서울지역 고교로는 유일하게 경기 분당의 서현고(226명)가 10위를 차지,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20위권 내 학교 중에는 외고 5곳, 예술고 3곳, 과학고 2곳 등 특목고가 절반인 10곳이었고, 일반고는 9곳, 자립형사립고는 포항제철고 1곳이었다.

전국 85개 고교가 100명 이상의 서울대 학생을 배출했으며, 서울 39곳, 경기 11곳, 대구 8곳, 대전 6곳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순천고가 100명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으며 광주는 한곳도 없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차 없는 날' 텅빈 주차장

'세계 차 없는 날'인 22일 공무원들이 승용차 출퇴근을 자제함에 따라 광주시청 지하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매월 네번째 수요일을 '차 없는 날'로 정해 시행해왔으나 이날은 '세계 차 없는 날'에 맞춰 행사일정을 변경했다. '세계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타지 말자는 시민운동이다.

/위즈랑기자 jrwl@

### 상위 10% 교육비, 하위 10%의 7.8배

올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으로 하위 10%의 7.8배에 달하는 등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2003~2008년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증가율은 46.3%에 달했으나 하위 10%는 16.9%에 그쳤다.

상위 10% 가구의 월 지출 중 식료비 비중은 2003년 22.0%에서 2008년 19.9%로 떨어져 지출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밀린 반면, 교육비 비중은 11.5%에서 1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의 경우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으로 달한 반면 하위 10%는 7만 4천 193원으로 그 격차는 7.8배에 달했다.

하위 10%의 교육비는 상위 10%의 12.8%, 전국 평균 교육비(28만 3천 211원)의 26.2%에 그친 셈이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상·하위 10%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6.2배였던 점에 미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광주천 또 물고기 떼죽음

광주천에서 또다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관계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광주천에서의 물고기 떼죽음은 지난 17일 이후 이달 들어 두 번째이다.

22일 광주시와 서구청에 따르면 이 날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뒤편 광주천에서 30~50cm 크기의 잉어 300마리가 천변 물과 응당이 등지에 죽은 채 흘러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시에 신고했다.

이곳은 지난 17일 잉어 50여 마리가 죽은 채 물 위로 떠올랐던 곳에서 1.5km 가량 떨어진 신류 지점이다.

/연합뉴스

9월 23일  
(음 8월 24일)



| 광주   | 포항   | 여수   | 원도   | 구례   | 해남   | 장흥   | 화천   | 순천   | 전주   | 남원   | 원주   | 충주   | 제주   |
|--|--|--|--|--|--|--|--|--|--|--|--|--|--|
| 구름 많음  |
| 21~29°C  | 21~27°C  | 22~26°C  | 21~28°C  | 18~30°C  | 19~28°C  | 19~28°C  | 18~29°C  | 19~28°C  | 20~28°C  | 21~28°C  | 18~28°C  | 21~25°C  | 21~25°C  |
| 서해남부<br>안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br>만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 남해서부<br>안나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br>만나다=남서~북서풍 파고 0.5~1.5m |

▲해뜸 06:21 ▲해침 18:28 ▲달뜸 --:-- ▲달침 14:43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4(수) | 25(목) | 26(금) | 27(토) | 28(일) | 29(월)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19/28 | 19/28 | 18/27 | 17/26 | 17/26 | 18/27 |

### 여대생 11% "한달에 한번 필름 끊겨"

#### 도은영 광주여대 교수 조사

답했으며 직장인 가운데는 6% 가, 주부 가운데는 3%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했다.

여대생 100명 중 19명은 한 달에 1번 이상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11명은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여대 간호학과 도은영 교수가 지난 5월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음주실태에 따른 것이다.

여대생들은 또 51%가 한 달에 2~4번, 13%는 일주일에 2~3번, 3%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 달에 한번 이하는 23%, 전혀 안 마시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연현주기자 ahj@

#### 조선대 조기 정상화 촉구

##### 1·8항쟁 교수 모임

인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즉각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데도 교과부는 이사가 없는 대학들에게 긴급 사무처리권 행사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과부와 사학분쟁 조정위는 더 이상 대안없는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대는 지난 6월 30일 임시이사 임기가 종료됐는데 새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은 채로 2개월 이상 방치됐다"며 "교과부와 사학분쟁 조정위는 하루 빨리 정의사를 선임해 법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당신의 빛은 건강하십니까?  
Gwangju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http://www.kwangju.ac.kr/international/exchange/index.jsp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JAVA 프로그램 개발자 과정  
http://www.kwangju.ac.kr/international/exchange/index.jsp